사람을 지킨다.
세상에 비춘다.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에너지, **원자력!**

밤바다에 길을 잃은 배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 서 있는 등대
등대는 하나의 배도 낙오되지 않도록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춥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오랜 세월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과
사람들이 삶의 윤택함을 누릴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간과 환경, 그리고 기술이 더불어 세상을 만드는 일,
한국전력기술이 함께 합니다.

Happy Together, KEPCO E&C

한국전력기술

- **2013**
  코트디부아르 CIPREL 발전소 증설
  EPC 사업 수주
- **2009**
  최초 한국형 원전 수출 참여
  (UAE 원전 종합설계/원자로 계통설계)
- **2011**
  가나 화력발전소 EPC 사업 수주
- **2001**
  미국 Power Engineering지 선정
  "세계 최우수 Project"수상
- **1996**
  미국 EPI선정 "세계 최우수 발전소"수상
- **1987**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주계약자 선정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
- **1975**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위해 설립

201604

KEPCO E&C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6년 4월호

KEPCO E&C Family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신한울 원전 3,4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외

&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 우체통 | Power Engineering School Epilogue
12 일하며 즐기며 | 베트남 빈딩성 화이난 지역 국제봉사활동 외
20 문예 | 수박 외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4 新성장지도 | 조선의 르네상스, 정조시대가 만든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 수원
30 Storytelling | 서울에서 예정없이 찾아온 손님
32 기자칼럼 | 자동차 업계의 '알파고',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34 건강 100세 | 황사철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대처법
36 생활과 과학 | 봄나물의 제왕, 두릅
38 Culture | Exhibition, Musical, Book, Movie
40 KEPCO E&C NEWS |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외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6 인포메이션 | 이사 중 파손된 이삿짐, 배상받을 수 있는가?
47 에코포토 | 그게 나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통권 411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6년 4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신한울 원전 3,4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 사이버보안 등 최신 기술기준 적용으로 안전성 대폭 향상

회사는 지난 3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5년 1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최초 공급제의서를 제출한 이래 수차례의 수정공급제의서 제출과 계약조건 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리 회사는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 △인허가 지원 △보조기기 구매 기술지원 △주기기 계약 기술관리 △시공 및 시운전 기술지원 등 원전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건설되는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 노형이다.

APR1400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자립과 함께 표준모델로 개발한 OPR1000(Optimized Power Reactor 1000, 한국표준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개발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전 전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기존 OPR1000과 비교해 발전용량을 1,000MW에서 1,400MW로 증대시켰으며, 설계수명의 연장(40년→60년)과 함께 안전성, 경제성, 운전 및 정비 편의성도 대폭 향상되었다.

지난 2009년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4기의 원전 또한 APR1400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이자 수출 상품이다.

이번 신한울 3,4호기에는 국내 사이버보안 규제기준 및 인간공학 신규요건 등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의 신한울 1,2호기 인접부지에 건설되며,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회사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과 원전 수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고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창의혁신그룹 '더새롬' 발대식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

회사는 4월 5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창의혁신 리더그룹 '더새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더새롬'은 입사 10년차 미만 직원과 10년차 이상 직원 각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원회의나 이사회를 보완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더새롬'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더새롬' 리더그룹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前중앙공무원교육원장 윤은기 교수의 창조혁신 리더그룹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박구원 사장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나 현재 경영현안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든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데 창의와 혁신의 중심기업으로서 우리 회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더새롬' 리더그룹과 경영진이 소통함으로써 회사 비전 달성을 촉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ITER 국제기구와 케이블엔지니어링 지원용역 Work Plan 3 계약 체결

회사는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기구와 케이블엔지니어링 지원용역(CESS : Cable Engineering Support Services) Work Plan 3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지난 3월 31일 체결했다.

케이블엔지니어링 지원용역은 2012년 5월에 ITER 국제기구와 첫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케이블 설계, 케이블 경로설계 및 관리, Tray 및 Support 설계, 기술자문 등이며 총 계약금액은 1,832만유로(한화 약238억원)이며, 이번 Work Plan 3 해당 금액은 430만유로(한화 약56억원)이다. Work Plan 3의 계약은 기 수행중인 케이블엔지니어링 지원용역 모 계약 기본 5년 이후 추가 5년 Addtional Option에 대한 계약이며, 모 계약의 10년 사업에 대한 계약 완성을 의미한다. 이번 ITER 국제기구와의 계약 확정으로 신규 예정사업의 확보와 함께 우리 회사의 엔지니어링 실무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해외시장에 각인시켰다.

& And

모두가 바쁜 아침 출근길,
아파트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먼저 탄 사람들과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눕니다.
12층에서 초등학생 남매가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올라탑니다.
둘은 동시에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동생이 종알종알 조금 큰소리로 말하자 오빠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9층에서 멈추어 섭니다,
한 아주머니가 타려다가 먼저 내려가라는 손짓을 합니다.
입구 쪽 사람들이 안쪽으로 비켜서며 자리가 충분하다고 말해 줍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보이며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녀의 속 깊은 배려에 모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출발 직전의 엘리베이터를 보고
전속력으로 뛰었는데 문이 닫히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정말 야속하고 '2초만 잡아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는 도착했고
잘 차려입은 아가씨가 현관문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속했던 기억을 되살려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뛰어 올 법도 한데 반응 없는 걸음으로 오더니 인사도 없이 올라탑니다.
친절에 대한 무례함. 살짝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타자마자 벽에 붙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만 비춰보고 있습니다.
나를 투명인간쯤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둘 뿐인 공간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
또는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얼굴만 검색하다가 내렸습니다.

혹시 맞선에서 퇴짜 맞고 오는 길이었을까요.

Power Engineering School Epilogue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공대생은..? Power Engineering School(PES)!!!"

글을 여는 말로 꼭 이 말을 쓰고 싶었다. 실제로 Power Engineering School(PES)은 나는 물론, 함께 참가한 모든 동료들에게 많은 감동과 지식을 선물해 주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공대생이면 누구나 가질 법한 고민들과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교수님들에게 직접 들으면서 진로계획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PES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선물세트였다.

PES는 한국전력기술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30여개 대학교에서 각 2~3명의 이공계열 학생을 추천 받아, 전력기술의 미래 공학도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 산업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 10여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산업의 전반적인 강의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내가 참여한 PES 9기 역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PES 9기 겨울캠프의 추억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에너지 전반의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세계의 에너지시장 동향에서부터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의 전반적인 내용과 풍력, 태양광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단시간에 두루 섭력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분야 교수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대학생으로서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특히 강의 중간 중간 관련 학과들의 영역을 짚어 주시며 에너지산업에서 각 학과가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다. 평소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느껴왔는데 이번 PES를 통해서 강의실에서의 수업이 발전소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율적인 자리배치를 통해서 초면의 어색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동기애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활동과 조별활동을 통해서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서 우리 학교만 과제가 많고 힘든 줄 알았는데 타 대학 역시 공대생들은 과제속에서 한 학기가 끝나가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 또한 서울의 친구들은 타 대학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에 접하고 내실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더 치열한 학교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했다.

셋째, Power Engineering School은 열린 교육 현장, 그 자체였다.

프로그램을 총괄하시는 팀장님과 각 조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거침없는 질문에 대답해 주셨고 때로는 우문현답으로 감탄을 자아내기까지 하였다. 식사를 할 때에도 팀장님과 교수님들은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대학생으로서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특히 강의 중간 중간 관련 학과들의 영역을 짚어 주시며 에너지산업에서 각 학과가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다.

학점이 낮아 자신감을 잃어가던 나에게 회사오면 다시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며 기를 살려 주시던 팀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질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 가장 아쉽다. 평소 전력기술에 관심 있던 나는 PES를 마치며 이제는 진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보이는 듯 했다. PES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전공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게 됨으로써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알게 되었다. 아직도 진정한 공학도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PES를 통해 얻은 많은 경험과 자신감은 또 다른 도전에서 많은 것을 쟁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PES 9기를 위해 많이 힘써주시고 배려해주신 이경섭 팀장님과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이재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Power Engineering School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인재양성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E&C

한국전력기술과 적십자가 함께한

베트남 빈딩성 화이난 지역 국제봉사활동

지난해 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베트남 빈딩성 화이난 지역 아동·청소년 학습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을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다. 이번 국제봉사활동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직원 및 봉사활동 지원자들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우리 봉사단이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출발하기에 앞서 베트남 현지 상황 및 구호 활동 지역에 대한 정보와 세부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교육을 받았다. 봉사활동은 크게 학교시설 페인트칠하기, 나무심기, 급식 및 물품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전교육이 끝나고 장장 8시간의 이동 끝에 무사히 숙소에 도착하였다.

첫째 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거리 차량에 탑승하였다. 숙소에서 또 다시 2시간을 이동하여 화이난 지역 한 학교에 도착했다. 지친 우리를 위로하듯 도착하자마자 학교 관계자 및 베트남적십자사 직원들이 환영해 주었고, 간단히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귀여운 현지 어린이들이 수줍은 듯 우리 주변을 서성거렸다.

베트남어는 모르지만 표정과 몸짓을 통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학교시설 페인트칠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가 작업한 건물은 학교 정문,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모두 4개 시설이었다. 비 소식이 있어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지 날씨가 맑아 페인트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페인트 작업 경험이 없는 우리를 돕기 위해 현지 페인트 전문가들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건물이 많고 작업인원이 모자라 하루에 완료할 수는 없었지만, 예상보다 봉사단원들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몰입하여 반나절만에 절반 이상을 완료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우리 한국 봉사단의 봉사활동 현장을 담기 위해 현지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다. 난생 처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라 긴장도 되었지만 왠지 뿌듯하고 환영 받는 것 같아 좋았다. 또한 학교 측에서 우리를 위해 다음날 베트남 전통공연도 준비해 주었다.

우리는 나무심기와 다음날로 예정된 베트남 전통공연 관람 그리고 구호물품 전달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페인트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페인트 작업이 마무리 되었고 이어서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봉사단원들이 힘을 합쳐 학교 주변으로 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고 각각의 명찰을 달았다. 나무를 심는 내내 순박한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싶었는지 물을 가져와 나무에 물을 주며 도와주었다.

셋째 날

급식 및 구호물품 전달식이 진행되기 전 학교 측에서 준비한 베트남 전통공연을 관람하였다. 학교 선생님, 중학교 및 초등학교 학생들,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다양한 공연을 통해 우리 봉사단을 환영해 주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준비한 구호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구호 물품은 텔레비전, 빔프로젝터, 피아노 키보드, 자전거 등 학생들의 수업환경 및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로 준비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나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뻤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숙소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대접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만찬을 베풀 수 있었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같이 점심식사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다.

3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정들었던 아이들과 떠나려 하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봉사활동이 모두 마무리되고 베트남 아이들과 주민들을 보며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E&C

문화유산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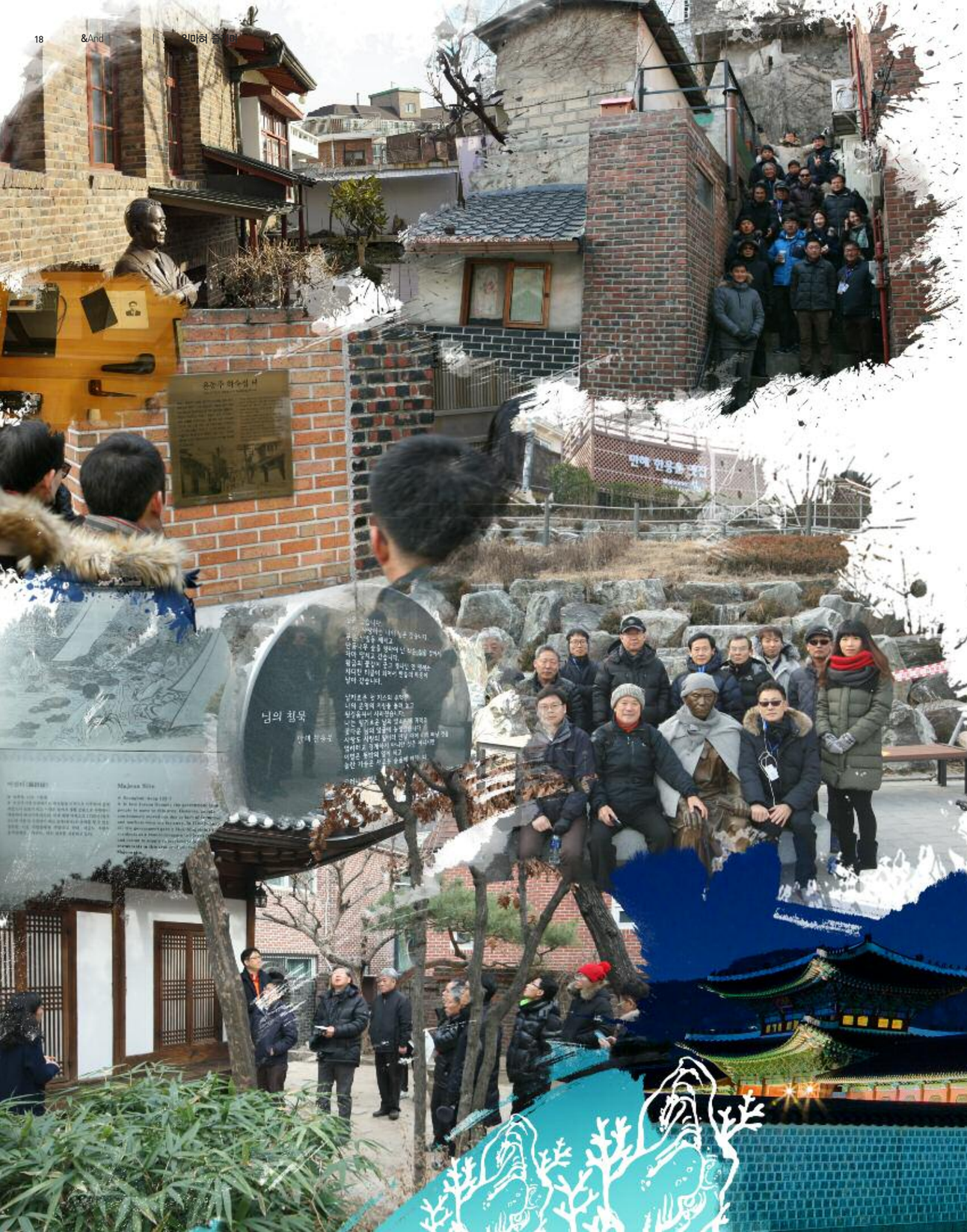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세계인들이 함께 지키고 가꿔야 할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사적(史跡) 제117호 경복궁과 서울의 명당터 성북동 한옥마을을 눈으로 담아왔다.

경복궁

경복궁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한 궁궐의 망루 동십자각을 돌아서자 경복궁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겨울 끝자락에서 부는 찬바람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궁 안으로 향했다. 마침 수문장 교대의식이 행해지고 있던 터라 많은 인파가 몰렸다. 다시 한번 경복궁의 인기를 실감했다. 둘러보니 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의식을 즐기고 있었다. 경복궁문화재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궁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광화문을 지나 문무백관이 임금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는 근정전, 궐내각사터, 정도전이 이름을 지은 사정전 일원 등, 학창시절 이후 첫 방문이라는 설렘과 함께 '오랜 역사의 숨결과 궁궐의 아름다운 자태를 느끼며 찬찬히 둘러보자!'라는 당찬 마음가짐은 동장군의 심술 궂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다.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해 세종 때 집현전으로 사용되었던 수정전 근처에 위치한 호젓한 카페 겸 기념품점에 들렀다. 준비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곳에 전시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국전통예술 형식과 문양에 다채로운 색으로 입혀진 아기자기한 장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 군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었다. 짧은 휴식 뒤, 경복궁문화재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궁궐 나들이는 계속 되었다. 경회루부터 왕의 침전인 강녕전과 여인들의 공간이었던 교태전, 십장생이 새겨진 굴뚝이 있는 자경전을 돌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폐관시간이 되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향원정과 집옥재 등이 위치해 있는 경복궁의 북쪽을 둘러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높게 느껴졌을 궁궐이 이제는 누구나 편히 드나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의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새삼스레 격세지감을 느꼈다.



성북동 한옥마을

흔히들 성북동은 소위 고가 단독주택이 즐비하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회장님들 저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노신사인 문화해설사가 하나, 둘 들려주는 현장설명은 통속적인 상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성북동의 옛 이름은 마전터. 빨래터라는 의미로 1765년 영조시절부터 사람들이 이곳 성북동에 이주하는 대가로 광목을 빨아서 표백하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성북동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굳이 갈라 놓는다면 윗동네는 부자동네요 아랫동네는 숱한 옥고와 가난 속에서도 절개를 잃지 않으셨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기거하시던 댁이 위치한 서민 마을이다. 이곳은 단지 부자와 서민의 편가르기가 아니고 조선시대에서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재에까지 역사와 문화가 혼합된 히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유명한 문인, 예술가들 그리고 대조적인 사회적 계층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처럼 느껴졌다. 심우장[주1]은 보수 중이라 만해 선생님 동상(좌상) 옆에서 기념촬영만 했다. 동상의 눈빛에서 선생님의 일제(日帝)를 향한 분노와 조국 광복을 향한 강렬함이 느껴졌다.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는 1997년 창건 이전에는 장안 최고 요정이었던 대원각 터에 자리 잡았으며, 이 곳이 어떻게 법정스님과 인연이 닿아 사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부지를 시주하신 김영한 여사의 고귀한 전설 같은 아름다운 사연을 들었다. 중앙에 위치한 관세음보살상은 일반 사찰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복합된 상이었다. 관세음보살상과 성모마리아상을 합친 듯한 석상은 천주교와 불교의 화합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사찰과 교회 그리고 성당이 곳곳에 자리 잡은 성북동의 정경이 결코 어색하지 않은 조화와 절제의 미를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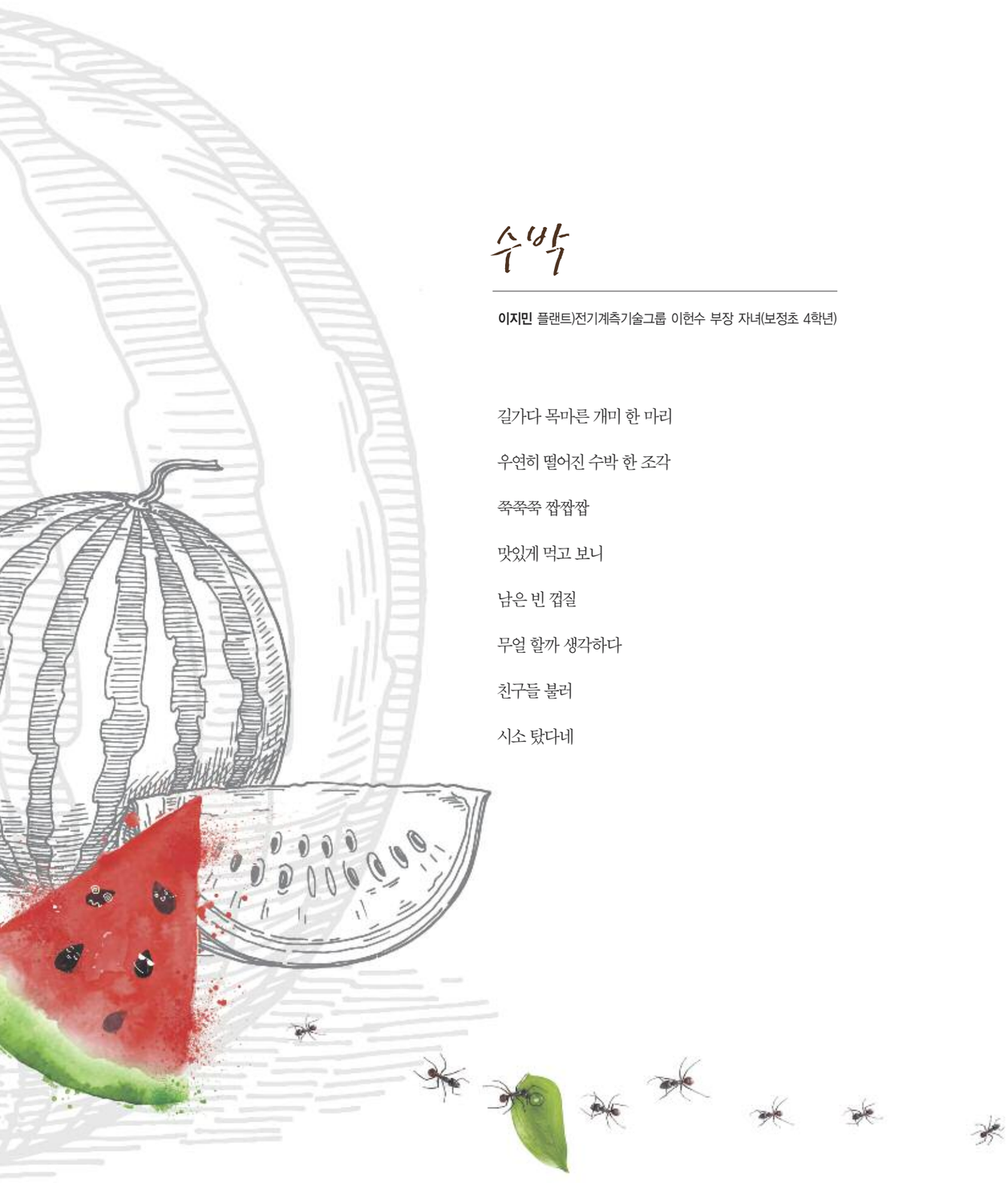
길상사를 지나 월북작가 이태준의 고택인 수현산방을 경유하여 간송(澗松) 전형필 미술관에 도착했다. 장안 제일의 부자 전계훈의 증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치를 부리지 않으신 분이셨다.

일제의 손아귀로부터 선조들의 혼이 어린 미술작품을 지키는 데에는 사재를 털어 이를 사들여서 후세에 전해 주며 조국의 문화재 수호에 앞장 서신 선생님. 과연 이 땅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주2]를 실천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 한다면 곧 그 의문은 숙연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

주1) 심우장(尋牛莊), 만해 선생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집 터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하셨다.
주2)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 주었던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의 공공정신에서 유래한 말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항복의 후손인 이회영 선생을 들 수 있다.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의 형님으로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만주로 건너가 항일구국운동의 재정 지원을 해 주셨다.

성북동 마지막 코스는 문인 최순우 선생님이 기거하시던 한옥집이다. 문화유산을 국가가 지키기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소멸되어가는 기와집(한옥) 등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소위 내셔널트러스트 회원들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다. 정성껏 우려낸 감로차를 마시며 고인의 생전 활동 모습을 들었다. 그리고 직접 붓을 이용해서 그림 엽서를 그려 보았다. 어색하던 붓 놀림이 빨라지면서, 시간은 정오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과 온전히 보존, 전승하는 일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E&C



수박

이지민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이헌수 부장 자녀(보정초 4학년)

길가다 목마른 개미 한 마리

우연히 떨어진 수박 한 조각

쭉쭉쭉 짭짭짭

맛있게 먹고 보니

남은 빈 껍질

무얼 할까 생각하다

친구들 불러

시소 탔다네

알록달록 무지개

김이연 안전해석그룹 김경련 차장 자녀(오렌지유치원)

무지개는 어떻게 생길까?

친구들 생각해 보자.

나도 생각해 볼께.

아~ 비가 오면

알록달록 무지개가 생기는 구나.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

Communication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있느냐는 물음에 '꽃 멀미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리 꽃이 지천으로 피었어도
행여 그 꽃 꺾어 머리에 꽂지는 말라고 하였더니
말뜻을 이해하고 모처럼 큰 소리로 웃어 본다고 하였습니다.

네가 꽃이라고 생각하니 안 예쁜 꽃이 없고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미운 꽃이 없더라는
낯간지러운 말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말 속의 네가 내가 아님을 압니다.

'살아 있는 것은 아픈 것, 아름다운 것은 어지러운 것'
이해인 수녀님의 시를 인용해가며 우리의 대화는 이어집니다.
꽃도 인생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 가고 오는 것에
너무 들뜨거나 연연하지 말라며 마음 고생한 티를 냅니다.

잘나가던 청춘이었는데 사업도 가정도 물거품 되고
도피 하다시피 찾아 간 곳이 노모가 계시는 고향땅,
망설이다 안부 전화를 낸 것인데 시간이 흐름에
이제는 절망의 고통도 이별의 아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슴속 응어리진 사연들은 끝내 들을 수 없었지만
가끔 연락하며 살자는 말에서 희망의 봄을 읽습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설한을 이겨낸 봄꽃들이 줄지어 피고 지는 봄의 고갯마루,
먼저 나온 꽃들이 뒤따르는 잎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속살거려 대지와 우주의 기운을 생성 시키는가 봅니다.

봄의 기운이 모두의 가슴에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01

02

조선의 르네상스, 정조시대가 만든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

01 정조의 행차가 머물던 화성행궁 02 봄꽃이 피어 행궁의 정취가 깊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신도시가 있었을까? 지금과 같은 의미의 대규모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계획도시가 있었으니 바로 수원화성이다. 지금은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수원을 말할 때 문화유적도시의 이미지도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존재 때문이다. 수원화성은 정조 18년(1794)에 착공되어 2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당시 확산되었던 실학사상의 영향과 조선판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정조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화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

정조(1752~1800)는 시와 글씨와 그림에 두루 능했던 조선의 22대 왕이다. 굳이 말하자면 문화대왕이란 호칭을 붙여도 무리가 없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던 임금이다. 1759년 여덟 살의 어린나이로 세손에 책봉되었으며, 1775년 영조가 죽자 25세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의 대부흥기를 이끌어가게 된다.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같은 실학자들을 당파에 구애 없이 고루 등용하였고 끊임없이 혁신정치를 펼쳐 나갔다. 그러나 정조에게 뼈저린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는 양주 배봉산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묘를 지금의 화성군 화산으로 옮기게 되고 매년 봄과 가을, 참배를 다녔다. 그러다 아예 도읍을 옮겨버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고자하는

03

06

03 서문인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04 서북공심돈은 성곽의 주요방어시설로 수원성에만 있는 시설물이다. 현재 동북공심돈과 함께 두 개의 공심돈이 남아 있다 05 수원화성박물관에 전시된 수원화성 디오라마 06 연무대. 군사훈련을 시키던 곳 07 기록문화유산인 화성성역의궤 08 봉수대. 팔달문과 창룡문 사이에 자리한 군사시설물

그의 이상이 담겨져 있었다. 수원화성은 영의정 채제공의 총지휘 아래, 정약용이 공사과정을 계획, 감독하였다. 그 이전까지의 토목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수려하고 견고한 성곽을 2년 반이란 짧은 기간에 완성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학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응용이었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40근의 힘으로 무려 625배나 되는 2만5000근이나 되는 돌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로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여하튼 수원성의 축조에는 당대의 모든 과학과 기술이 집약되었다. 동서양의 축성술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사전에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요 방어시설을 모두 벽돌을 만들어 쌓아올렸을 정도로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성곽이 단지 전시를 대비한 건축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민생을 위한 의도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의 계획도시였던 셈이다. 무엇보다도 민폐가 없는 인화와, 장인 솜씨를 발휘해 아름다운 벽돌 성이자 조선시대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수원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록문화의 또다른 유산 – 화성성역의궤

수원화성의 축조과정은 화성성역의궤 안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원화성의 기획과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항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위궤는 조선왕조가 편찬한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기록문서이다. 화성축조에 있어서 임금의 지휘방침은 서두르지 말 것, 기초를 튼튼히 할 것, 사치스런 치장을 하지 말 것, 일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할 것,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었다. 화성성역의궤를 보면 정조의 인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매우 치밀하고 합리적이며 엄정했던 반면에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성을 쌓기 전, 수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변의 농가들을 수용했는데, 의궤에는 농가들의 주인이름, 위치, 수용가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공사에 참여한 전문장인들의 명단과 노임, 출신지와 소속을 기록했고 노역에 참여한 백성들의 이름도 기재했다. 축성에 필요한 자재들은 백성의 것을 징발하지 않고 모두 정확한 값을 쳐서 사들였다. 백성들의 노임도 지급되었는데 기술숙련도와 노동의 강도, 노동시간에 따라 정확하고도 차등 있는 노임을 지급했다. 공사가 진행 중일 때 현장에 내려진 임금의 지시는 백성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혹심한 더위에 성 쌓는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헐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어찌 잠이 편안하겠느냐. 척서단(더위 먹은데 먹는 알약) 4천 알을 보내니 한 알이나 반 알씩 정화수에 타서 먹이라. 병을 치료하는 방편에 각별히 유의하고 더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넉넉히 마련해서 한사람의 기술자나 일꾼이라도 더위 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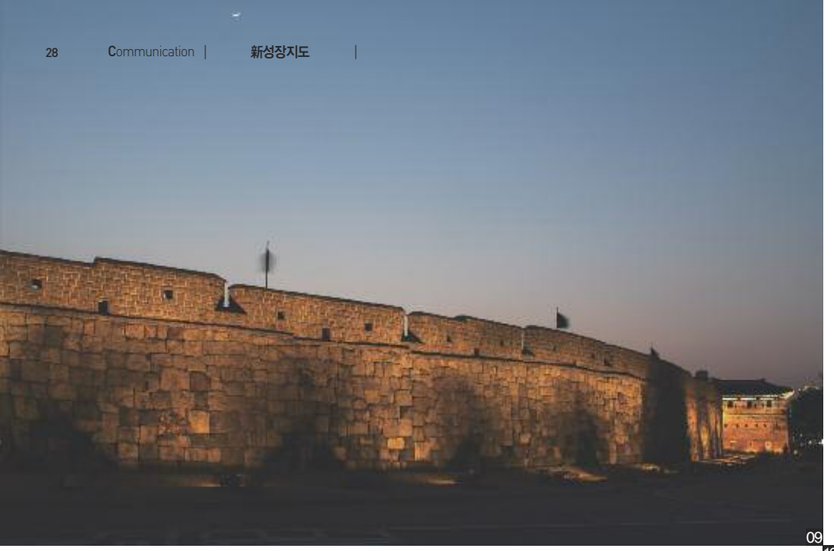
화성성역의궤를 읽으면 수원성의 단단함과 아름다움은 합리적인 꼼꼼함의 바탕 위에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04

05

07

08



09

09 수원성은 야경이 좋다. 봄밤 성곽을 거닐어 보는 것도 좋다 10 화홍문. 성과 바깥을 이어주는 물길이 지난다 11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야경 12 수원성의 북문인 장안문 13 방화수류정. 연못과 버드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수원성의 휴식처 14 수원성의 역사와 성곽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10

13

성곽을 따라 걸어보자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3호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4대문인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과 동장대, 서장대, 공심돈, 봉돈, 포루 등 전통적인 성곽의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장대는 트인 조망을 지녀 외곽의 동정을 살피는 곳으로 총지휘본부가 있던 곳이다. 날이 맑을 때는 백리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돈 역시, 외곽을 주시하는 초소의 용도인데 성벽에 구멍을 뚫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설치된 공심돈은 수원성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물인데 성벽을 따라 들어선 여러 시설물 중에서도 가장 큰 화력을 일시에 쏟아낼 수 있게 설계되었다. 봉돈은 5개의 굴뚝을 쌓아 유사시에는 봉수대 역할도 하였다. 이처럼 전통 성곽을 거닐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건축물들. 각각의 용도와 짜임새에 관해 추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팔달산 정상부의 서장대에 오르면 사방으로 트인 수원시의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성곽의 전체 둘레는 5.7km로 찬찬히 걸어서 도는 시간은 대략 2시간 ~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장안문이나 팔달문에서 출발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이유이다. 자가용을 가져올 경우엔 한산한 창룡문이나 화서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야간의 수원화성을 돌아보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성곽전체와 조형물에는 세계문화유산답게 훌륭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성 외곽의 어지러운 간판이나 건물들이 어둠 속으로 묻히고 나면 오롯이 돋보이는 역사유적의 흥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11

12

수원화성 주변의 볼거리들

남문인 팔달문 주변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수원성의 네 대문 중에 정조가 직접 이름을 짓고 상량문을 써준 곳이 팔달문인데, 상량문에는 "돈과 곡식과 군사가 없는 곳이 없고, 선비와 농사꾼과 장사치가 반드시 여기에 있네."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팔달문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상인들이나 과거를 보러 오는 선비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관문으로 교통과 물류의 요지였다. 농업만큼이나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던 중상주의자 정조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팔달문에 시장을 열었다. 현재 팔달문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물 맑은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아홉 개의 시장이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영동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꽝시장, 못골시장, 팔달문시장 등이다. 수원화성의 여정에서 시장구경은 별도의 즐거움이다. 화성행궁 건너편 종각을 지나 광교천 다리를 건너면 수원화성박물관이 있다. 화성성역의궤를 비롯해 수원성 축조에 관계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E&C

14

서울에서 예정없이 찾아온 손님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시　　기 : 1622년 2월 23일
인　　물 : 김령, 조굉, 서숙, 이실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주　　제 : 접빈객

1622년 2월 23일, 김령은 건날, 지인의 부모님 수연 잔치에 간절한 초청을 받았다. 정오 즈음 한식절(寒食節) 제사를 지내고 잔치가 열리는 가곡(柯谷)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서울의 선비로서, 이름은 조굉(趙宏)이라고 하였다. 김령은 그의 이름을 들은지 오래였으나, 술잔을 나누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돌아간 뒤 다시 가곡으로 가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할 수 없이 김령은 서숙의 집, 이실의 집을 다니며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 한식 제사의 유래와 내용

한식(寒食) 청명절(淸明節) 당일이나 다음날이 되는데 음력으로는 대개 2월이 되고 간혹 3월에 드는 수도 있다. 양력으로는 4월 5~6일경이며, 예로부터 설날 · 단오 ·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일컫는다. 한식이라는 명칭은 이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옛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 그 기원은 중국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개자추는 문공(文公)과 19년간 망명생활을 함께하며 충심으로 보좌하였으나, 문공은 군주의 자리에 오른 뒤 그를 잊어버리고 등용하지 않았다. 실망한 개자추는 면산에 은거한 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문공이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 문공은 개자추를 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는데, 그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여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고대에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이에 앞서 일정 기간 구화(舊火)를 일체 금한 예속(禮俗)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식날 나라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주과(酒果)를 마련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만일 무덤이 헐었으면 잔디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改莎草)라고 한다. 또 묘 둘레에 나무도 심는다. 그러나 한식이 3월에 들면 개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날 성묘하는 풍습은 당(唐)나라 때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해진 것으로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로 숭상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민속적 권위가 더욱 중시되어 조정에서는 향연을 베풀기도 하였으나 근세에는 성묘 이외의 행사는 폐지되었다. 농가에서는 이날 농작물의 씨를 뿌린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완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구글의 구글카

자동차 업계의 '알파고',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인간이 만든 게임 중 가장 복잡하다(경우의 수만 10의 170~260승 개)는 바둑에서 알파고는 보란 듯이 이 9단에게 4번의 불계패를 안겼다. 예상보다 빠른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진화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 반, 기대 반'이다.

2015년 3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에서 시험주행 중인 벤츠의 자율주행차 F015 럭셔리 인 모션

자율주행 테스트 중인 아우디의 자율주행차 잭의 내부모습

2015년 3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시험주행 중인 벤츠의 자율주행차 F015 럭셔리 인 모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함께 인공지능이란 조력자가 인류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철학적인 선택의 영역도 과제로 남겼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설정부터 과연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을 뿐 AI의 도전 영역은 이미 반상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의료부터 금융, 요리, 자동차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이중 코앞으로 다가온 분야는 자동차다. 당장 4년 뒤엔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가 도로 위에 등장할 전망이다. 이미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업계는 2020년을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120여년 전 탄생한 자동차는 인간을 치타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영장류로 만들어 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인명사고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해 약 124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인간이 죽는 이유 중 9위에 해당한다. 2030년에는 도로에서 사망하는 희생자 수가 3배까지 늘어 한해 36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막겠다는 도전은 현재 완성단계다. 세계 과학자들이 사고는 물론 연료소비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운전석을 컴퓨터에 넘겨준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교통사고의 수는 현재의 90%까지 줄어들 것이란 것이 과학계의 예상이다.

어떻게 사람대신 차가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술적 단계는 크게 4가지 과정(센서, 프로세서, 알고리즘, 액추에이터)로 압축된다. 센서는 사람의 눈과 귀를 대신해 신호와 주변차량의 흐름, 사물, 차선 등 차 밖의 상황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차량에 비디오카메라와 레이더센서, 위치측정기 등을 장착하는 방법이 쓰인다. 프로세서와 알고리즘은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과정이다. 앞서 센서로 수집한 외부정보를 빠르게 처리해 순간적으로 서야 할지 달려야 할지 또 핸들은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일종의 의사결정 단계다. 이 두단계는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 액추에이터는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급정거해야 할 상황에서 즉시 오른발을 대신해 브레이크를 밟고, 손을 대신해 운전대를 안전한 각도로 정확히 돌려주는 식이다.

교통사고 90% 줄이겠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천문학적 투자

가장 앞서 달리는 곳은 구글이다. 구글은 2010년 10월 자율주행차의 첫 모델인 구글카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설마 했던 깜짝쇼는 불과 약 1년 반 뒤에 벌어졌다. 2012년 3월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구글카가 스스로 운행하는 모습을 담은 한편의 동영상을 공개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탄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다. 차량에 올라탄 마한은 음성으로 자신의 목적지를 입력했고 차는 마치 운전사라도 태운 것처럼 그의 명령대로 동네 식료품 가게와 세탁소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캐스팅이었다.

물론 구글카는 여전히 실험단계다. 얼마 전에는 구글카가 우회전 도중 버스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내면서 330만㎞ 무사고 운행기록이 깨졌다. 하지만 이 사고를 실패나 좌절로 정의하기엔 어렵다. 산술적으로 330만㎞는 지구를 82 바퀴 반을 돈 거리다. 하루 300㎞ 가량을 운행하는 국내 개인택시 운전사가 365일을 쉼없이 운전해 30년 이상 단 한 번 접촉사고를 기록한 것과 다름없다.

기자가 타 본 벤츠의 자율주행차 F015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분주하다. 2015년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105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F015 럭셔리 인 모션'으로 세계 언론의 시선을 훔쳤다. F015는 수동 또는 자율주행모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동모드를 선택하면 불필요해진 운전대가 앞쪽으로 사라지고 차량 내부 좌석들은 마치 응접실처럼 배치된다. 운전은 차에 맡기고 뒷사람과 대화하라는 배려다. '미래의 차일 뿐'이라는 세상의 의구심에 벤츠는 'NO'라고 답한다. 그해 3월 기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포인트 전 해군 기지 내 활주로에서 이 차를 타볼 수 있었다. 20분여 동안 4㎞ 구간을 달리는 짧은 체험이었지만 어느덧 불안감은 사라졌다. 테스트를 위해 모의공원 안으로 차를 진입시키자 F015는 자전거와 사람, 나무 등을 피해 능숙하게 방향을 틀고 또 속도를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며 유유히 운전을 이어갔다. 마치 도로사정에 익숙한 베테랑 운전사가 차를 모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기술을 지닌 회사가 벤츠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폭스바겐 그룹도 실리콘벨리에 연구실을 세우고 스탠퍼드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소가 만든 무인 자동차는 지난 2010년 산악도로 경주가 열리는 로키산맥 파이크스 피크(Pikes Peak) 19.87㎞ 구간을 27분만에 완주했다. 볼보도 로드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운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마치 열차의 객차가 줄을 지어 움직이듯 컴퓨터가 선두 차의 움직임과 교통흐름 등을 감안해 따라가는 기술로 이미 일부 볼보 차에 도입된 시티세이프 기능 등을 대폭 개선한 형식이다. 최근 애플과 손을 잡은 BMW는 2011년부터 고속도로 주행에 중점을 둔 자동운전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졸면 죽는다

이제 자율주행차를 공상 과학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이는 없다. 첨단기술이 그렇듯 한번 소비자의 품에 들어와 익숙해지면 첨단제품이 퍼져 나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2013년 보고서에서 무인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는 시기를 2020년으로 예상했다. 도입 첫해는 8,000대 수준이겠지만 이후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계 3대 시장(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을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8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15년 뒤인 2035년 판매량은 9,5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그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5톤 이하 경량급 차량(승용차 포함)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가 등장한 3년 전만해도 이런 이야기는 허무맹랑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2~3년씩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남의 이야기를 하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답답하다. 자동차의 미래라 불리는 자율주행차 경쟁력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법에 막혀 아예 불가능했던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이 국내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 첫 시험운행을 시작한 현대차도 관련 기술개발에 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 졸면 죽는다는 말은 이제 절대명제이다. 경쟁국들은 운전석에서 졸아도 죽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기 바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책상 앞에서 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C

황사철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대처법

만물이 생동하는 봄, 마음은 벌써 따스한 햇살아래 봄 꽃 속을 노니는데 몸은 찌뿌듯하고 피곤하다,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은 쏟아지고 입맛도 없는데다가 황사로 인해 목은 칼칼하고 콧물은 흘러내리고… 봄이 괴롭다는 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황사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봄철 우리나라를 뒤덮는 황사는 날로 산업화되고 있는 중국의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납,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미세 입자들이 많아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위험하다. 주의하지 않으면 피부, 기관지, 폐, 각막 등에 큰 손상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외출이 잦아지는 봄, 이에 대비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러지성 비염

집먼지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음식물 등 알러지성 비염의 유발인자는 수없이 많지만 봄은 특히 꽃가루나 황사로 인하여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괴로운 계절이다. 알러지성 비염은 코가 가렵고 자꾸 재채기를 하며 맑은 콧물이 흐르는데 심해지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이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황사철 알러지성 비염 환자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손을 비롯하여 콧속까지 여러 차례 씻어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체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각종 알러지 반응과 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약재를 가미한 형개연교탕(荊芥蓮翹湯)을 투여하고 침 치료를 병행한다.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의 3대 증상은 기침, 천명(숨을 쉴 때 쌕쌕 또는 가랑가랑하는 소리가 나는 것), 호흡곤란 등으로 황사철에는 이 증상들이 모두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토록 하고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정화와 습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황사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하다면 도라지가 추천할 만하다.

도라지는 폐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가래를 삭히며,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고 폐와 코,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 집에서 도라지차를 만들려면 도라지 16g을 물 3컵에 넣고 중간 불로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마시면 된다. 도라지 가루를 하루 4g씩 먹어도 효과는 비슷하다.

피부병

봄철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고 황사 등이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지고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 분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로 외출 후에는 노출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화장을 하는 여성의 경우는 꼼꼼하게 클렌징 해주고 여러 차례 따뜻한 물로 씻어내어 모공 안에 침투한 유해 입자들도 씻어내야 한다.

피부건조를 막기 위해 세안 후 보습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여드름이 심하면 어성초 200g, 금은화 100g, 감초 4쪽을 깨끗이 씻어 생수 1ℓ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냉장고에 보관해 아침, 저녁으로 스킨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다. 황사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이 심해졌다면 감초차나 갈근차(칡차)도 도움이 된다.

결막염

봄철 질환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복병 중 하나가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눈이 매우 가렵고 충혈되며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고 여기에 끈끈한 분비물까지 나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 등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눈을 자꾸 비비는 것보다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박거리거나 인공눈물로 씻어내거나 눈썹 양쪽 끝과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지압해주면 도움이 된다.

춘곤증, 식욕부진

봄철 누구나 가벼운 춘곤증을 경험한다. 하지만 유난히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거나 입이 깔깔하고 입맛이 떨어져 식사생각이 없는 경우, 기력이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은 분들은 병원을 찾아 그에 맞는 약을 처방 받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소생과 활력, 충동의 계절인 봄을 맞아 간 속에 있던 생기(木기운)가 간이 약하여 충분히 위로 올라오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봄 보약'으로 불리는 체질별 한방보약이 좋다. 또한 우리 땅에서 제철에 만날 수 있는 봄나물들도 도움이 된다. 냉이, 달래, 쑥, 봄동, 미나리 등 봄나물들에는 신맛과 쓴맛이 있어 겨울을 지나며 떨어진 입맛을 돋워주고 간의 기를 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오장육부 기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의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신체의 활력을 되찾아 준다.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면 봄철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 무기력함이나 춘곤증 등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므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평소 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인 운동으로 정기를 보강하고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비타민제나 비타민음료 등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 등이 해마다 돌아오는 봄철의 변함없는 건강관리 비법이다. E&C

봄나물의 제왕, 두릅

두릅은 이름만 들어도 입 속에 향기가 돈다. 아마도 먹고 나면 하루쯤은 그 향기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두릅의 향은 우리에게 봄을 선사한다. 길고 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우리 몸은 자연히 나른해진다. 이를 예부터 춘곤증이라고 불렀다.

봄이 되면 피곤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바로 봄이면 산과 들에 지천으로 나는 봄나물들이 그 해결책으로, 봄이 되면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고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 제철나물인 봄나물을 먹어야 한다. 특히 봄에 새로 나는 어린 싹들 대부분은 약한 쓴맛을 갖는데, 약한 쓴맛은 열을 내리고, 나른해지면서 무거운 것을 치료하며, 입맛을 돋우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봄에 나는 쑥이나 달래, 냉이 같은 채소를 두고도 나물이라고 하고, 채소를 무쳐 조리해 놓은 것을 두고도 나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채소라는 말과 혼용되는 나물은 무슨 뜻일까? 나물에는 이름도 많다. '푸성귀'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꾸어 기르거나 저절로 난 온갖 나물을 일컬었다, 또는 '남새'라고도 하는데 이는 심어서 가꾸는 나물로 채마라고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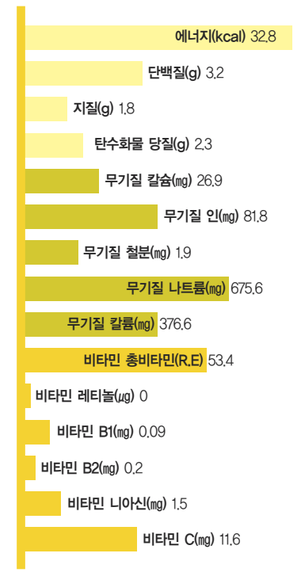
그래서 과거에 채마(菜麻)밭을 집에 두는 것은 기본이었다. 나물은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을 조미해 무친 반찬 모두를 통칭했다. 그러니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식물 또는 채소를 조미해 만든 반찬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나물이다. 또는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의 재료를 총칭하기도 한다. 나물은 숙채와 생채를 일컫는다. 우리 일상식의 부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음식의 하나로 나물의 재료로는 모든 채소와 버섯, 나무의 새순 등이 쓰인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노래한 〈농가월령가〉의 정월, 이월, 삼월에는 나물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온다. 정월령에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하여 오신채를 부러 하랴.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미를 바꿀소냐."와 이월령의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로쟁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이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그리고 삼월령의 "울밑에 호박이요, 처맛가에 박 심고, 담 근처에 동아 심어 가자하여 올려보세. 무·배추·아욱·상추·고추·가지·파·마늘을 색색이 분별하여 빈 땅 없이 심어놓고, 갯버들 베어다가 개바자 둘러막아 계견을 방비하면 자연히 무성하리. 외밭은 따로 하여 거름을 많이 하소. 농가의 여름반찬 이밖에 또 있는가."

과거부터 채소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기(饑)'는 곡식이 여물지 않아서 생기는 굶주림을 말하고 '근(饉)'은 채소가 자라지 않아서 생기는 굶주림을 일컬었다. 즉, 오곡의 곡물 못지않게 채소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먹을거리가 넘쳐나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근의 해결로서가 아니라 비만의 해결책으로 나물은 최고의 음식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나물은 현대 사회의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줄인 것이다.

이렇게 산과 들에 지천으로 나는 나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나물이 바로 두릅이다. 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말하는데, 그 독특한 향이 일품이다, 두릅은 땅두릅과 나무두릅이 있다. 땅두릅은 4~5월에 돋아나는 새순을 땅을 파서 잘라낸 것이고, 나무두릅은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두릅은 10여 종에 이르는데 봄철의 어린순을 먹고, 한문으로는 나무의 머리 채소라는 뜻으로 '목두채(木頭菜)'라 한다. 자연산 두릅은 4~5월에 잠깐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인공 재배를 하므로 이른 봄부터 나온다.

※두릅의 영양성분(1인분 량/80.2g)



두릅은 비교적 단백질이 많으며 섬유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등이 풍부하다. 특히 쌉쌀한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준다, 두릅은 이렇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또한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내는 효능이 있고 피와 정신을 맑게 한다. 냉이, 달래, 쑥, 원추리, 들나물 등 숱한 봄나물이 있지만 '두릅'은 사포닌 성분 때문에 최고로 치기도 한다.

두릅은 어떻게 조리해 먹는 것이 좋을까? 껍질에서부터 순, 잎,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두릅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방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산적, 잡채, 김치 등 다양한 요리에도 향긋하게 잘 어울린다. 두릅은 어리고 연한 것을 골라 껍질째 연한 소금물에 삶아 찬물에 헹궈 건진다. 이때 두릅의 쓴맛은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거슬린다면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내면 된다. 삶은 두릅을 상온에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하므로 주의한다. 또한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소금에 절이거나 얼리면 된다.

조선말기의 유명한 조리서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도 두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생두릅을 물러지지 않게 잠깐 삶아 약에 감초 쓰듯 어슷하게 썰어 놓고 소금과 깨를 뿌리고 기름을 흥건하도록 쳐서 주무르면 풋나물 중에 극상등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므로 조금만 먹는 것이 좋다"고 했다. 두릅은 실제로 약한 독성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데쳐서 헹구어 먹는 것이 좋다. 이 봄, 우리는 다른 호사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물중의 제왕, 두릅으로 향긋한 봄 향기를 느끼는 호사만은 놓치지 말자.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Culture

Exhibition

디뮤지엄 개관 특별전 : SPATIAL ILLUMINATION – 9 LIGHTS IN 9 ROOMS

기 간 : ~ 2016년 5월 8일 장 소 : 디뮤지엄

9개의 빛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9개의 눈부신 감성을 선사합니다.
디뮤지엄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라이트 아트(Light Art)' 작품을 선보이는 개관 특별전을 개최한다. 햇살처럼 부서져 내리는 빛의 숲속을 걷고, 일렁이는 빛의 물결에 몸을 실어보거나, 빛의 흩날리는 바람을 느껴보고, 새로운 차원의 공간 경험으로 초대할 것이다. 9명의 작가들이 완성한 빛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9개의 감성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색에 잠기게 하고,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전율을 선사하며 온몸으로 빛을 경험하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www.daelimmuseum.org/d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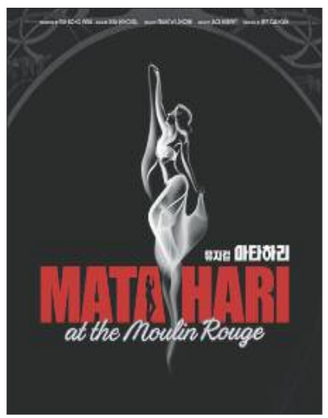
Musical

마타하리

기 간 : ~ 2016년 6월 12일 장 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1917년 파리 교외의 어느 들판, 숨을 멎게 할 만큼 아름답고 고혹적인 자태의 마타하리가 서있다.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마타하리는 '사원의 춤'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럽 전역의 유명인사로 활동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타하리를 찾아온 프랑스 정보부의 라두 대령과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유럽의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맺고 있으며, 유명 인사라는 신분 덕분에 전쟁 중에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마타하리는 세계 1차대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프랑스에게 더 없이 유용한 존재였고 라두 대령은 그녀에게 프랑스의 스파이가 되기를 요구한다. 한편 마타하리는 센느 강변에서 조종사 아르망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만다. 전쟁의 기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마타하리를 스파이로 고용한 라두 대령은 점점 아름다운 마타하리에게 매료되고 라두 대령과 아르망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된다. 결국 라두 대령은 아르망을 현재 독일의 점령지이자 위험지역인 비텔로 보낸다. 생사여부가 불투명해진 아르망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쓴 채 비텔로 향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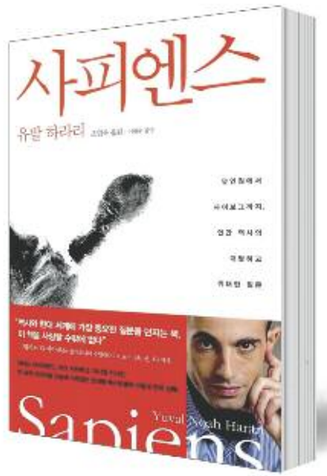
musicalmatahari.com



Book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가장 논쟁적이고 대담한 대서사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가? 인간은 왜 지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과학은 모든 종교의 미래인가? 인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멀고먼 인류의 시원부터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끊임없이 진화해온 인간의 역사를 생물학, 경제학, 종교학, 심리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고 생생하게 조명한 전인미답의 문제작. 호모 사피엔스부터 인공지능까지,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한 권으로 써 내려간 문명 항해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저/조현욱 역 | 김영사



Movie

독수리 에디

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포기를 모르는 도전을 향한 열정의 아이콘!
영국 스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에디'(태런 에저튼), 그는 동계 올림픽 출전에 대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키 점프'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상처뿐이다.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무작정 독일의 스키 점프 훈련장으로 떠난 그는 그곳에서 반항적인 성격으로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서 퇴출된 천재 스키 점프 선수 '브론슨'(휴 잭맨)을 우연히 만난다. 자신의 코치가 되어 달라며 막무가내인 '에디'이지만, '브론슨'도 그의 열정 앞에서 무너진다.
과연 그들은 편견과 비웃음을 뛰어 넘고, 그들만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상영중

KEPCO E&C News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2016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3월 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41기 결산 변경(안), 제41기 영업보고서 변경(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취업규칙 개정(안), SMART PPE사업 투자분담금 승인(안)에 대한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창의혁신그룹' 명칭 공모 결과

우리 회사 창의혁신그룹 명칭으로 '더새롬'이 최종 선정되었다.

회사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에 창의혁신그룹 명칭을 공모하여 총 61명의 68건을 접수받았다. 본부, 단별 1차 평가 후 5건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안전해석그룹 이규천 상무의 '더새롬'을 당선작으로 확정하였다. 회사는 창의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선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10만원)을 수여했으며, 응모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했다.

Meister of Engineers 운영

회사는 창의혁신 선도직원에 대한 2016년도 Meister of Engineers를 시행한다.

Meister of Engineers는 성공적인 지방이전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회사의 기술 및 창의혁신을 선도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동기부여 그리고 소통, 리더십, 능력, 인격을 갖춘 직원상(職員像) 정립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Meister of Engineers는 직급에 관계없이 기술 및 창의혁신을 선도하는 직원 1명이 격월로(연간 총6명) 선정되며, 기념패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된다.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가족친화 기업 재인증

우리 회사가 가족친화 기업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2년 최초 인증(유효기간:2012년 12월 3일 ~2015년 12월 2일)을 받았으며 지난해 연말 재인증(유효기간 : 2015년 12월 3일 ~ 2017년 12월 2일) 심사를 통과하였다. 회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MB 품질경영모델 구축 고도화 추진반 가동

MB(Malcolm Baldrige) 품질경영모델 구축 고도화 추진반 착수회의가 2월 3일 한국표준협회 관계자 6명과 추진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MB 품질경영모델은 1970~80년대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품질상 제도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2개국에서 MB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가품질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월드 베스트(World Best)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현 품질경영시스템의 강·약점 파악과 중점추진과제의 도출 및 개선을 위하여 MB 품질경영모델구축 고도화 추진반을 구성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한국표준협회가 MB 품질경영모델 구축 배경 및 MB 모델 범주별 심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참석자들과의 중점추진과제 및 향후 추진 일정, 실행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MB 품질경영모델 구축 고도화 추진반은 운영의 취지 및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3차원설계전산화 워크숍 개최

회사는 플랜트본부의 3차원설계전산화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업수행 목표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2월 22일 플랜트본부 3차원설계전산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을 비롯한 BG장, PM, 기술그룹장 등 2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신규 1,000MW 석탄화력(강릉, 고성, 신서천)의 3차원설계 업무절차 개선, 성과물(Plan, ISO, BOM) 활용방안, 보안관리 ▶신규 1,000MW 석탄화력 EDB추진 현황 및 계획 ▶플랜트 SP3D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적용 계획 ▶자재코드 표준화 및 현장자재관리시스템 ▶협력사 발표(4D, 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민자발전의 3차원설계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업무절차, 보안관리 그리고 EDB적용 및 활용범위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회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KEPCO E&C News

필리핀 수알(Sual) 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 수주

– 동남아 지역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높여 –

회사는 3월 9일 필리핀 트랜스아시아(Trans Asia Oil & 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사와 '수알(Sual) 석탄화력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총 계약금액 65만달러(약 7억8천만원)로 필리핀 팡가시난(Pangasinan)주의 수알(Sual)시에 600MW~1000M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우리 회사는 약 6개월동안 △입지 조사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개념설계 △부지 선정 △경제성 분석 등의 역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지난해 필리핀 '나가(Naga) 석탄화력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데 이어 이번 용역도 수주함에 따라 필리핀 지역 사업개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신규 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

– 엔지니어링 겨울 캠프 성적 우수자 10명 대상 –

회사는 지난 1월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PES: Power Engineering School)의 겨울캠프 성적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PES 겨울캠프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평가, 워크숍평가, 출석점수 등을 합산하여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금오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10개 학교의 재학생들이다. 이재규, 이승종 전임교수는 2월 23일 금오공과대학을 방문하여 전자공학부 박민주 학생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수여했다. 전달식에서 교수진은 "앞으로도 전력기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회사는 금오공과대학교와 강원대학교를 시작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PES는 지난 2011년부터 주요 대학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전력기술분야 미래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이다. 9회까지 54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PES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전문강의를 필두로 발전소 견학, 인문학 특강, 문화 예술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공계 대학생들로부터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참가학생 중 7명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R&D전략기획단 박상덕 MD 초청 강연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의 박상덕 박사(에너지산업 Managing Director)의 초청 강연회가 2월 24일 열렸다.

박상덕 박사는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에서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중장기 연구개발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강연에서 박상덕 박사는 미래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전기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또한 미래 에너지산업의 키워드로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술, 다양한 사용자와 생산자,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분산발전, 에너지 저장과 활용 등을 꼽았다. 그리고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며, 우리도 미래 에너지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앞서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폭넓은 기술 및 사업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는 우리 회사가 미래 에너지산업 환경에 앞서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로서 우리 회사의 미래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

– 누적 헌혈참여자 1000명 돌파, 안정적 혈액수급 지원 –

회사는 3월 15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생명존중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헌혈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헌혈참여자 수는 990여명으로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1,000명을 가뿐히 넘어섰다. 또한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부한 헌혈증서를 병원,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증함으로써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회사는 이번 헌혈행사 이후에도 하반기 추가 헌혈행사 실시 및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최근 전국적인 혈액수급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활동 파트너로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헌혈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 봉사활동, 1m 1원 후원걷기대회, 사랑의 집짓기, 노후 버스승강장 개보수 사업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한기 야구단(코펙파워스)

우리 회사 야구 동아리 코펙파워스[감독: 플)기계배관기술그룹 하영훈 부장]은 지난 3월 13일 일요일, 김천중앙중학교에서 열린 제20회 김천시 야구협회장기 리그 첫 경기에서 난적 김천시청을 맞아 11:9로 승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야구대회에서 항상 우승후보로 꼽히는 코펙파워스는 김천으로 회사 이전 후 지속적으로 김천시 야구협회에서 리그참가 요청을 받았다. 회사 야구단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및 직원들의 여가활동 확대를 위하여 김천시 야구리그 참가를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가을부터 매주 화요일 회사 운동장 등에서 연습을 해왔다. 코펙파워스는 김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김천시청을 맞이하여, 이준 부장[원) 기계기술그룹]이 선발로 3이닝, 성경우 차장[재료연구기술그룹]과 김정헌 과장[ICT지원실]이 각각 1이닝씩을 소화하였으며 타석에서도 이준 부장이 마지막 회 만루찬스에서 펜스를 맞는 장타를 선보이는 등 출전한 모든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발휘했다. 김천시 야구협회장기 리그는 코펙파워스를 포함하여 총 19개 팀이 풀리그를 펼쳐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을 겨루는 대회이며, 매주 일요일 김천중앙중학교와 어모중학교에서 경기가 열린다.

사우 애경사

결혼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윤이나 사원 : 2월 27일 웨딩헤너스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김상민 대리 : 2월 27일 웨딩헤너스
- EPCM지원실 이찬희 사원 : 2월 28일 수아비스
- 신재생환경기술그룹 임정진 대리 : 3월 5일 웨스턴베니비스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유승훈 대리 : 3월 6일 엔지니어하우스 라쿠치나
- 원자로)사업개발처 김대원 사원 : 3월 13일 청주 더빈컨벤션웨딩홀

부음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김동규 사원 부친상 : 2월 3일 밀양 행복한병원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이광주 부장 부친상 : 2월 20일 공주장례식장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손세도 부장 빙모상 : 2월 22일 인하대병원
- 플랜트) EPCM지원실 조영찬님 빙모상 : 2월 22일 부산 구민장례식장
- 원자력기술그룹 서영하 차장 부친상 : 2월 25일 순천향대 구미병원
- 신재생환경기술그룹 양복연 차장 시부상 : 2월 25일 순천향대 구미병원
- 원자로)사업관리실 오율성 부장 빙모상 : 2월 29일 유성 한가족장례식장

동우회 동정

회원 소식

◆ 이동우 회원 미술작품 전시회
- 일 시 : 3월 31일(목)
- 장 소 :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갤러리(강서구 등촌동)

◆ 배환철 회원(한전서부발전(주) 감사위원장)
- 한국서부발전(주) 이사회 의장(2.16) 겸직

◆ 남궁종규 회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 이사직 연임

결혼

류춘택 회원 차녀 결혼 : 3월 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부음

조서인 회원 장인상 : 3월 5일 순천의료원

송필배 회원 장인상 : 3월 6일 서울아산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중 파손된 이삿짐, 배상받을 수 있는가?

Question

포장이사 중 냉장고 파손, 뒤늦게 발견

서울시에 거주하는 강 씨(남, 30대)는 지난해 5월 19일 이사 업체와 포장이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대금 총 9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 입금했다. 이후 6월 30일 이사를 마친 뒤 잔금 80만 원과 트럭 추가 비용 4만 원, 점심 식대 4만 원을 더한 8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7월 11일 설치된 냉장고의 냉동실 벽 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냉장고 제조업체에 A/S를 요청했지만 부분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사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 이러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Answer

이사 중 파손된 물품, 배상받을 수 있지만 사실 입증 어려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이사화물취급사업' 에서는 이사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 · 훼손됐을 경우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씨의 경우는 이사 과정에서 냉장고가 파손됐다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파손된 냉장고의 구입금액에서 냉장고 내용연수(7년), 사용기간을 감안한 잔존가치 20여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사 중 파손된 물품을 배송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가구는 일단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는데다 재질 특성상 마찰에 표면이 상하기 쉬워 이사 업체에서 이사하기 전부터 물품이 파손 · 훼손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 소비자는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사 후 파손된 가구를 두고 생활 중 발생한 것인지, 이사 과정에서 옻칠이 벗겨진 것인지 옥신각신하는 분쟁이 잦다.

파손 사실을 발견하면 가급적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사 도중이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이사 업체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E&C

이사화물서비스 이용 시 주의하세요!

무허가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전 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사 날짜, 작업 인원수, 추가 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둔다.

그게 나야

내가 꽃이 피려면 내가 일어서려면 태양이 필요하다고..
나는 아주 작지만 저 큰 태양만이 나를 꽃피우게 할 수 있어..
태양 말고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큰 바람에 매서운 눈보라에 억센 빗줄기에 끄떡 없어..
오르지 부드럽고 따스한 태양의 빛 만이 나를 움직일수 있어..
그게...나.야.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